

미국 마감 상황

2008.10.28

이승준 (02) 2009-7088
leesj@leading.co.kr

닛케이 지수가 26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아시아 증시의 악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로 인하여 하락 출발한 미국 증시는 널뛰기를 거듭한 끝에 일제 하락세로 마감.

지난 9월의 신규주택 판매 호조로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하였으나 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결국 하락세로 장을 마감.

이날 다우지수는 장마감 약 10분전 낙폭을 급격히 넓히며 전일대비 203.18p(2.42%) 하락한 8,175.77에 마감.

다우지수의 30개 종목 중 27개 종목이 하락하였으며 이중 GM이 8.4% 밀리며 하락세를 주도. 미국의 2대 통신사인 Verizon은 10.1% 오르며 2000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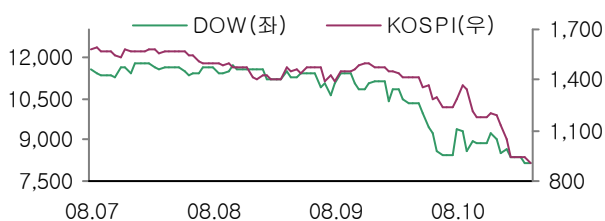
S&P500지수는 27.85p(3.18%) 밀린 848.92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46.13p(2.97%) 내린 1,505.90에 거래를 마감.

9월 신규주택 판매대 재고율은 7.3% 급감한 39만4천채를 나타내며 4년래 최저치를 기록. 신규주택의 판매 또한 2.7% 증가한 46만4천채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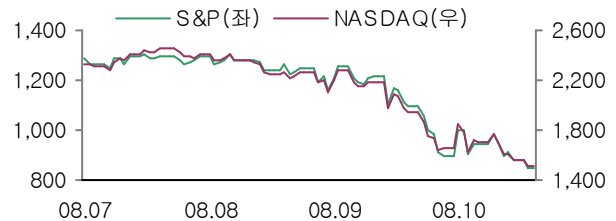
27일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달러의 강세에 따른 수요 감소의 전망 속에 1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대비 93센트(1.4%) 내린 배럴당 63.22달러로 마감.

미국 시장 주요 지표(pt, %)

지수	종가	1일	5일	10일	1개월	3개월	12개월
DOW(좌)	8,175.77	-2.42	-11.76	-12.91	-26.63	-28.10	-40.78
S&P(좌)	848.92	-3.18	-13.85	-15.39	-30.02	-32.51	-44.71
NASDAQ(우)	1,505.90	-2.97	-14.92	-18.35	-31.03	-34.82	-46.30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